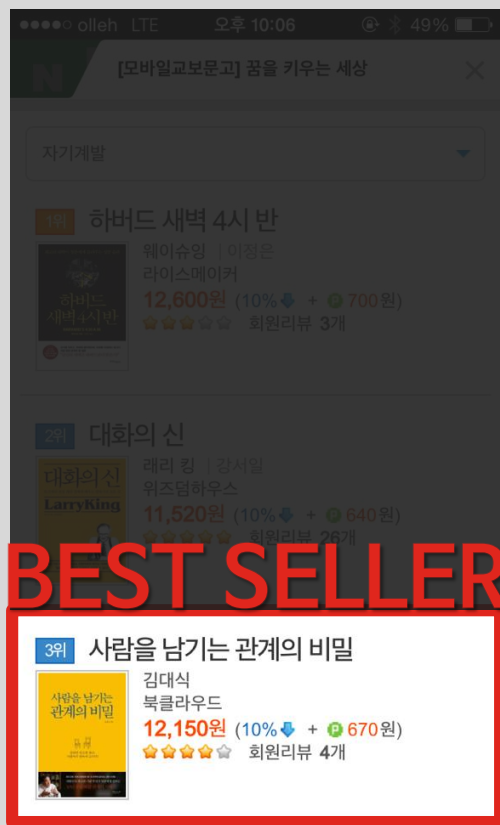


TV
한 권의 책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

결과만 얻으면 하수, 사람까지 얻어야 고수다!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

결과만 얻으면 하수, 사람까지 얻어야 고수다

김대식

강사 소개

학력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문학박사
- 일본 오타니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구과 문학박사

저서

-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 (북클라우드)
- 아이티의 눈물 (중앙일보)
- 연탄한강 (동양북스)
- 아들아, 아들아 외 20여권

수상경력

- 2013. 12. 13 대한민국 성공대상
- 2012. 06. 03 황조 근정 훈장
- 2010. 03. 05 대통령 공로상
- 2009. 12. 31 홍조 근정 훈장
- 2005. 11. 12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상



여의도연구원장
김대식

경력

- 2017~현재 여의도연구원 원장
- 1995~현재 동서대학교 교수
- 2013~2015 국무총리실 재외국민 정책위원
- 2011~2011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
- 2008~2010 대통령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사무처장(차관급)
- 2007~2008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인수위원(장관급)
- 2006~2007 제32대 전국대학교 학생처장 협의회 회장
- 2004~2005 한국일본학연합회 회장
- 2002~2004 대한일어일문학회 회장

나는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330잔의 커피



A close-up photograph of four tall, slender beer glasses filled with different styles of beer, arranged on a dark metal tray. The glasses are condensation-covered. From left to right: a light golden beer, an amber beer, a dark stout with a thick head of foam, and another golden beer. The background is a blurred bar interior with warm lighting.

120병의 맥주

A photograph showing a large number of small, green glass bottles of Soju, a traditional Korean distilled spirit. The bottles are arranged in several rows on a dark wooden surface. The background is a textured, reddish-pink wall. The text "90병의 소주" is overlaid in the center of the image.

90병의 소주

A hand holding a white smartphone in a cafe setting.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white coffee cup on a saucer, a glass of water, and some blurred items on a table. The text "매일 3시간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 is overlaid on the image.

매일 3시간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

A first-person perspective of someone sitting on a couch, watching a large television. Their feet, wearing white socks and blue jeans, are propped up against the bottom center of the TV screen. A hand on the left holds a black remote control, pointing it towards the TV. The TV displays a landscape scene with a blue sky, white clouds, and a field. The TV is mounted on a white cabinet with glass doors. To the right of the cabinet is a stone fireplace. The text "3시간 이상 TV 시청" is overlaid in the center of the screen.

3시간 이상 TV 시청

An open book with Korean text on its pages, resting on a wooden surface. The text is centered over the book's gutter.

그리고 0권의 책

PART 1.

다시, 관계를 디자인하라

나는 그대가 ‘사람 부자’면 좋겠다

삶의 각 시기마다 겪어야 할 ‘사람의 총량’이라는 게 있다.

이때 관계의 너비를, 그리고 깊이를 다채롭게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 보는 안목이 길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이 고달파질 수도 있다.

인맥보다
인연으로
먼저 만나라

많은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고 겪어보라는 말은 단순히 아는 사람 수를 늘리라는 뜻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되 진심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누군가를 대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달라지게 만든다.

딱
세 사람만
더

산도 멀리서 보면 하나의 덩어리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줄기의 산맥이 있고 작은 봉우리도 있다.
산맥과 봉우리가 어우러지면서 비로소 멋진 산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관계도 그렇다.

관계도 나이 드는 방식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한 번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나잇값 잘하는 관계를 그려나갈 수 있다.

놓치지 마라, 내 사람이다

성장이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과 ‘누군가와 동행하고자 하는 의지가’가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태도는 확연히 다르다.

A dark, high-contrast photograph of a modern building's interior. Three people are silhouetted against a large floor-to-ceiling window. They are looking out at a sprawling city skyline under a cloudy sky. The window is framed by thick, dark structural beams. The floor is highly reflective, showing the silhouettes of the people and the window frame. The overall mood is contemplative and professional.

PART 2.

어떻게 사람 부자가 되었나

peak

첫인상보다 마지막 인상을

‘피크엔드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평가할 때 극적인 순간(peak)과 마지막 순간(end)의 합으로 그것을 기억한다는 말이다. 관계 역시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의 합이다.

end

GIVE AND TAKE,

그 주고받음에 대하여

주는 사람은 베푼 것으로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을 끝내지만,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받은 것에 대한 기억을 끌어안고 산다.

오랜 시간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는 티켓이 '기브'에 들어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몇 개의 의자가 있는가

관계도 와인이나 치즈 그리고 장맛과 같다.

익어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대체로 오래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가만히 놔둬도 익어가지만 잊지 않고 관심을 가지며 들여다볼수록 그 맛이나 향이 깊어진다.

배려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배려는 가슴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입장을 생각해 침묵해야 할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 번만 더 고민해보자.

SNS,
그리고
너와 나

아무리 간편해도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
그래서인지 평소에는 사려 깊은 사람들도 희한하게
SNS에만 접속하면 언행이 가벼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도
맨 얼굴이
아름답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얻게 된 한 가지 통찰이 있다.
바로 관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진실함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부족해도 진실한 내 모습이 상대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이 된다.

評判

평판은 남이 써주는 자기소개서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좁은 사회일수록 평판은 결정적이다.

그런데도 언제 어디서 만날 줄 모르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행동했다가,

훗날 그것이 결정적 순간에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 사람을 처내는 모습을 보게 되곤 한다.

선택에도 수준이 있다

자신의 이익만 놓고 이것저것 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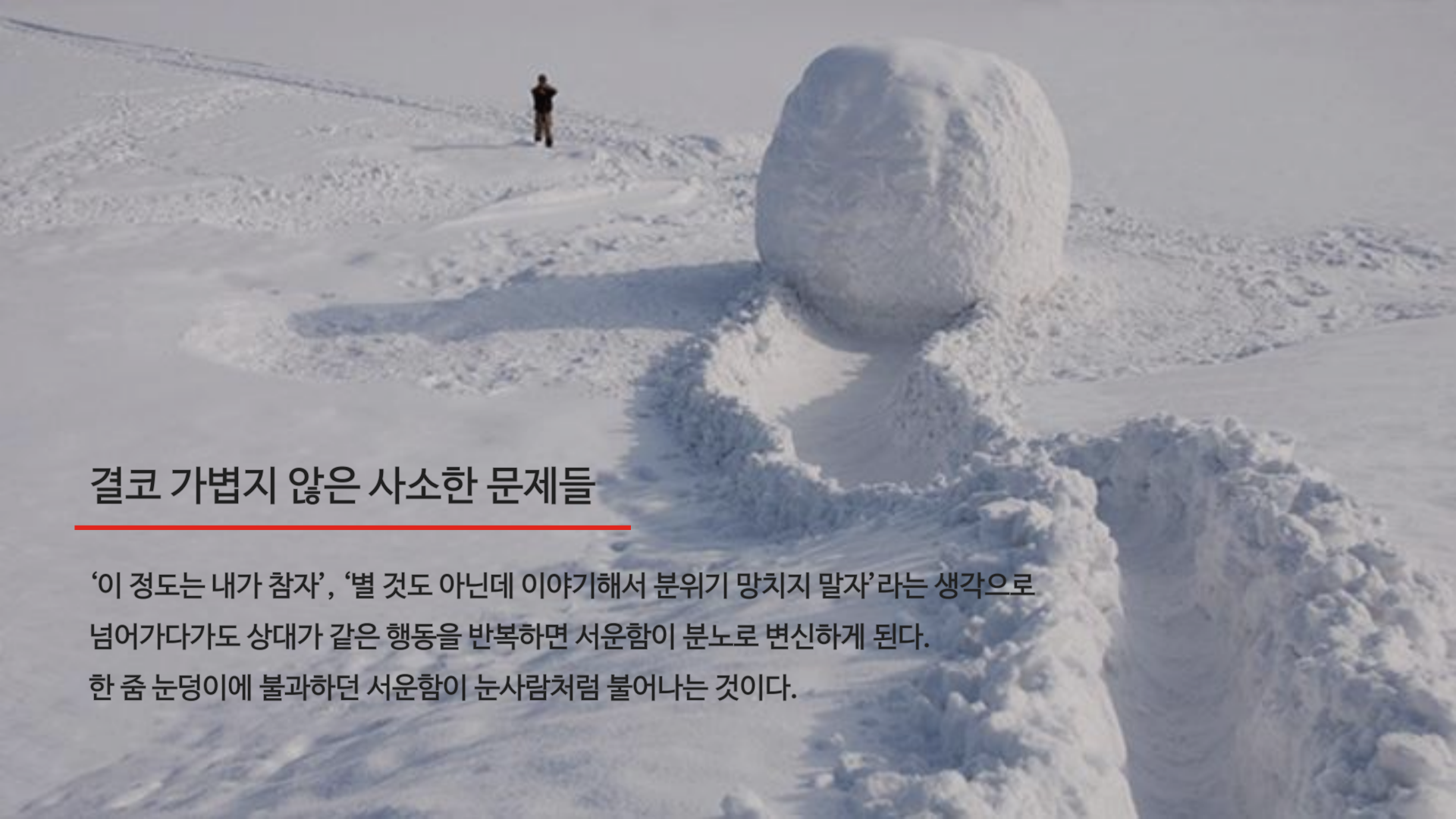
반면에 ‘저 사람까지 같이 웃게 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은 한 차원 높은 선택이다.

후자를 택할 경우 관계는 굳건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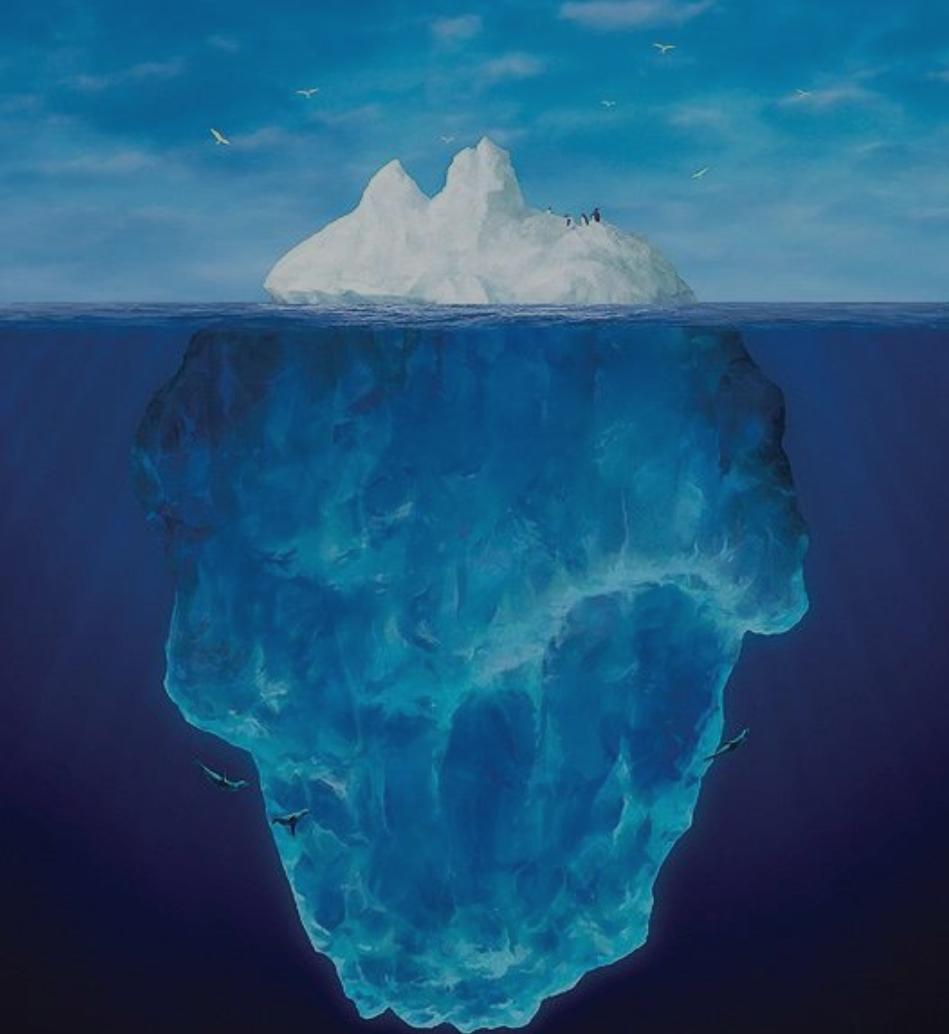
PART 3.

만나고, 겪어내고, 성장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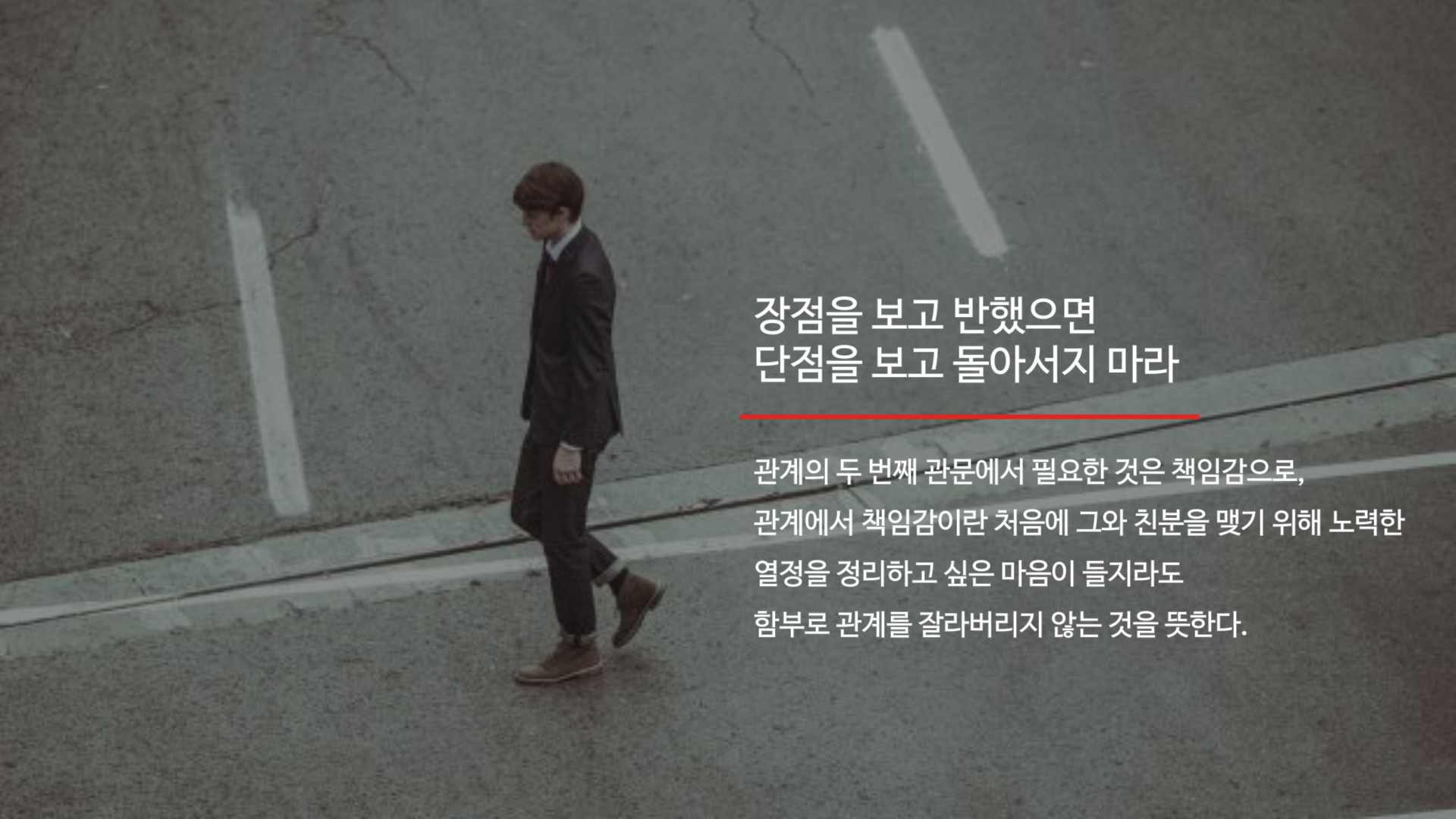
결코 가볍지 않은 사소한 문제들

‘이 정도는 내가 참자’, ‘별 것도 아닌데 이야기해서 분위기 망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다가도 상대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서운함이 분노로 변신하게 된다.
한 줌 눈덩이에 불과하던 서운함이 눈사람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밑지는 관계를 철학하다

젊은 날에 누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판단하고 재는 것 자체가
빙산의 일각만 보고 전체를 가늠하는 선부른 예측과 같다.
빙산의 둘레는 꼭대기만이 아니라 몸통과 밑동의
둘레까지 알아야 평균이라는 것을 낼 수 있다.



장점을 보고 반했으면 단점을 보고 돌아서지 마라

관계의 두 번째 관문에서 필요한 것은 책임감으로,
관계에서 책임감이란 처음에 그와 친분을 맺기 위해 노력한
열정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함부로 관계를 잘라버리지 않는 것을 뜻한다.

비교도
잘하면
‘약’이 된다



올바른 비교란 옆 사람의 성장이 나를 짓누르도록 내버려두는 수동적인 비교가 아닌,
그것을 내 성장의 밑천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비교도 잘만 활용하면 나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 보약이 될 수 있다.

기회를 잡을까, 관계를 지킬까

기회를 대하는 마음에 상대를 대하는 마음은
각각 ‘다른 방’에서 일어난다.

상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자신에게 온 기회를 양보한다고 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둘 사이가 공고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NO

미숙한 수용보다 완벽한 거절을

내가 생각하는 가장 무거운 시간은 바로
거절을 한 후 갖게 되는 ‘침묵의 시간’이다.

왜 이리 더디고 무겁게 느껴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예스를 내뱉는 실수를
저지르는 게 아닐까.



잘 싸우는 것도 능력이다

싸우기는 쉽다. 하지만 잘 싸우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이는 다른 사람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다.

필요할 때는 지혜롭게 싸울 줄 아는 사람이 관계도 성숙하게 끌고 나갈 수 있다.



손을 놓을 때도 시간은 필요하다

만날 때만 예의를 갖추는 사람은 하수다.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함께 걸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 손을 놓을 때조차도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이자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손을 놓을 때도 시간이 필요하다.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showing the lower legs and feet of several people standing in a line. They are wearing dark suits and polished black shoes. The background is a light-colored, possibly paved surface.

PART 4.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정석

저는 관계 1년차입니다.

謙遜

[겸손]

아무리 사회 경험이 많고 이른바 주도권을 쥔 위치에 있어도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처음으로 만나 인연을 맺는 사람과는 ‘오늘 처음 본 관계’라는 것이다.
그 어떠한 요소도 ‘인연의 연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

당신을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는 힘

約束

[약속]

약속은 수평적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바꿀 수도 있으며,
또 반대로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
약속을 통해 어느 쪽으로 스위치를 켜지는 각자의 몫에 달려 있다.

이게 진짜 100점짜리 애티튜드다

傾聽

[경청]

경청이란 그냥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내 인생에 들이려는 적극적인 의지’이다.

그래서 경청은 타인을 깊게 대하는 사람과 얇게 대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그 사람이 더 알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다

肯定

[긍정]

사소한 일이라도 상대가 나를 알아가고 싶도록 만드는 것,
그리하여 내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긍정의 힘이다.

그만큼
타인이 채워줄 공간이 넓은 것이다

缺乏

[결핍]

빈 공간을 먼저 상대에게 내려놓는 순간, 그 부족함은 나를 도와주는 최고의 자원으로 변신한다.
“당신이 채워줄 공간이 이렇게 넓으니 관심 있게 봐주세요”라는
일종의 간접적인 사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장 좋은 사람을 나눌 수 있는가,

共有

[공유]

대단한 그리고 다양한 관계의 주머니를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것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
그들은 관계를 공유함으로써 ‘좋은 평판’이라는 무형의 자원이 축적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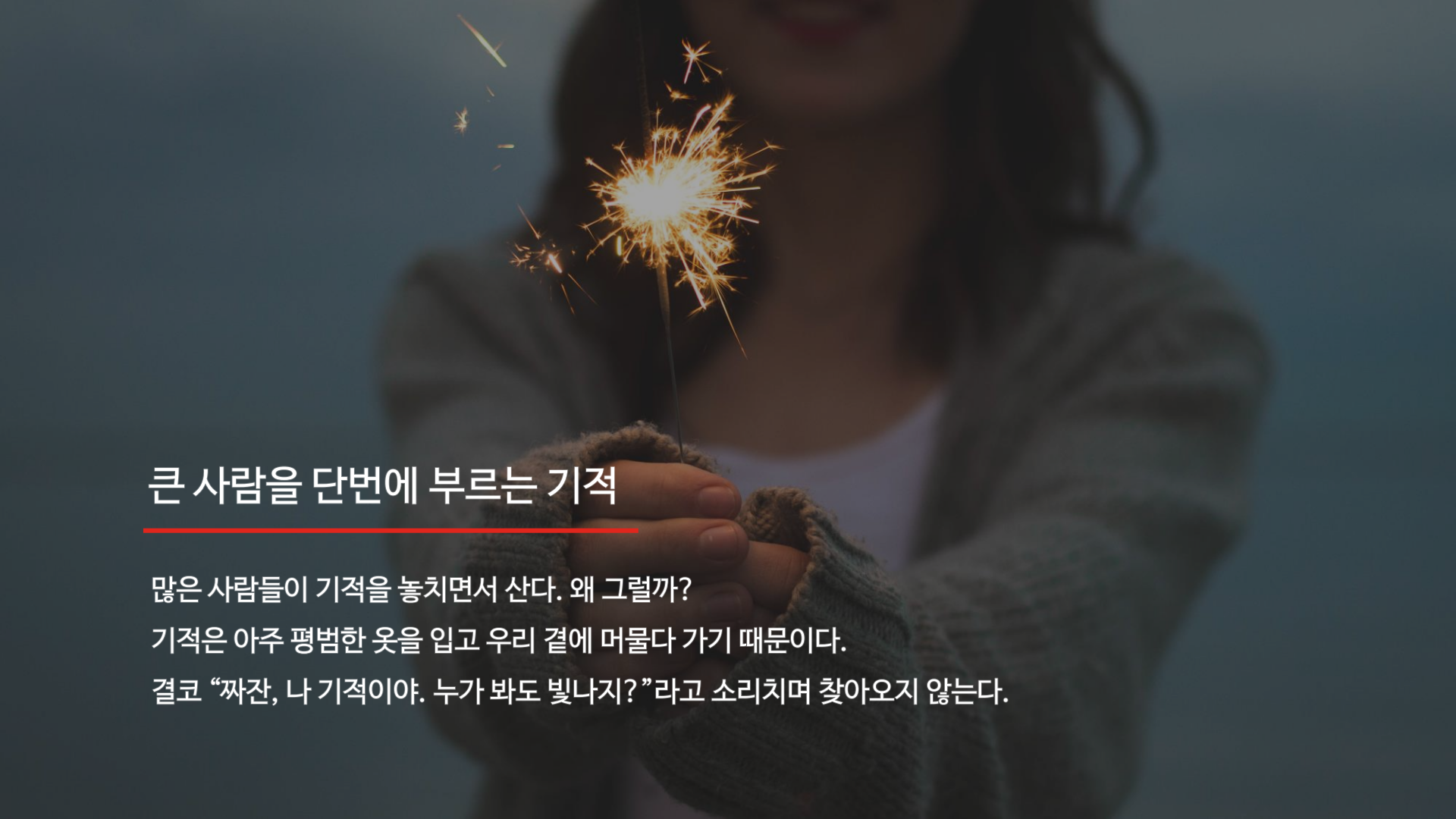
PART 5.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습관



번호는 바꾸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화번호는 귀한 인연들이 그리고 그들이 가져오는
좋은 소식이 내게로 오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다.
일종의 ‘진입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목적지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A person with long dark hair, wearing a light-colored sweater, is holding a lit sparkler. The sparkler is bright and glowing, with many sparks flying out. The background is dark and out of focus.

큰 사람을 단번에 부르는 기적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놓치면서 산다. 왜 그럴까?

기적은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우리 곁에 머물다 가기 때문이다.

결코 “짜잔, 나 기적이야. 누가 봐도 빛나지?”라고 소리치며 찾아오지 않는다.



10분이 만남의 질을 바꾼다

사람을 만날 때 그저 약속한 시간에 만나
용무를 처리한다고만 생각하지 말자.
단 10분이라도 나와 상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라는 우주와 ‘나’라는 우주가
하나로 통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진짜 고수가 돼라

도움만 얻고 끝내는 사람은 하수다.

반면에 도와준 이마저 자기 족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은 진정한 고수다.

그러니 아무리 사소한 것을 부탁했더라도 정보는 정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얻는 진짜 고수가 되자.

A background image showing three young women sitting in a field of tall, dry grass. The woman on the left is wearing a dark beanie and a dark jacket, looking towards the center. The woman in the middle has blonde hair and is wearing a denim jacket over a white shirt, laughing heartily. The woman on the right has blonde hair and is wearing glasses and a dark jacket, also laughing. The overall mood is joyful and carefree.

눈과 귀를
붙잡는

잡담 내공 기르기

잡담을 하다 보면 서로가 관심 있는 쪽으로 대화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 상대의 관심사를 잡아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층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잡담을 풀어내는 내공이 필요하다.

Inner circle

지금 당장 시작하라

고인 물이 썩듯이 움직이지 않는 관계는 넓어지지도, 깊어지지도 않는다.

갈등이 귀찮고 다툼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나를 뺏어나가게 할 ‘사람 경험’과 다양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

결과만 얻으면 하수, 사람까지 얻어야 고수다

김대식